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의 중재효과

The Effects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on Depression in Their Transitional Period

: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Support,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Support

박정현(Jung Hyun Park)¹, 이미숙(Mi-Sook Lee)^{2*}

¹Department of Living Culture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²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on depression in their transitional period and to fi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support,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depression. The participants were 550 first graders in three middle school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Kyung-gi Provinc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had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The lower the level of school adjustment was, the higher the level of depression was. Second, parental support,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support had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depression. Parental support decreased the depression of adolescents who were at a lower level of adjustment to peer relationship or school class. Parental monitoring decreased the depression of adolescents who were at a lower level of adjustment to school adjustment. On the contrary, parental monitoring increased the depression of adolescents who were at a higher level of adjustment to school adjustment. Peer support decreased the depression of adolescents who were at a lower level of adjustment to school class.

▲주제어(Key Words) :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우울(depression), 부모지지(parental support), 부모감독(parental monitoring), 친구지지(peer support)

I. 서 론

청소년기는 인간발달단계에서 매우 특별한 시기로, 흔히 심리적 격동기라고 불리며 신체적·성적·인지적·

정서적·사회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일대 전환기이다(S.-C. Han, 2004). 즉,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가장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의미하며, 이 시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성취해야 할 과중한 발달과업

• 본 연구는 201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 Mi-Sook Lee,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 Jibong-ro,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420-743, Korea, Tel: +82-2-2164-4306, E-mail: misooklee@catholic.ac.kr

과 인지적 미성숙으로 인해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우울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심리적 부적응 가운데 하나로(K.-H. Kim, 2004), 청소년기에 이르러 그 발생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며(J. E. Dumas & W. J. Nilsen, 2010), 성인기의 빈도를 넘어서는 경향을 보이고(O. B. Chung, 2008), 청소년기에 시작된 우울은 성인기에 시작된 우울보다 오래 지속되며 재발될 확률이 높다(E. J. Kim & K. J. Oh, 1992). 더욱이 청소년 우울은 충동적이고 감정기복이 큰 사춘기적 발달특성상 비행, 자살 등의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실시한 제 8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MEST, MW, & CDC, 2012)에서는 청소년의 30.5%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며,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주로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심리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애착, 완벽주의, 자살 등이 있으며(H.-H. Chung, 2012; G.-M. Goo & J.-M. Kim, 2010; K.-N. Lee, 2002; P. M. Lewinsohn, P. Rohde, J. R. Seeley, & C. L. Baldwin, 2001; A. Millings, R. Buck, A. Montgomery, M. Spears, & P. Stallard, 2012; H.-Y. Min, 2012; M.-Y. Sim & K.-H. Kim, 2005) 심리사회적 환경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부갈등, 부모감독, 학교적응, 사회적지지 등이 있다(D. Bacchini, M. C. Miranda, & G. Affuso, 2011; Y. Eoh, 2005; J. Jeon, 2005; H.-Y. Kim, 1999; M. S. Kim, 2009; J. K. Park & H. S. Doh, 2001; E. Stice, P. Rohde, J. Gau, & C. Ochner, 2011).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학교생활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적응과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Y. S. Cho & K. N. Lee, 2010),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급격한 발달적 변화와 동시에 보다 어려워지고 복잡해진 학교 과제, 그리고 높아진 교사의 기대와 보다 중요해진 상호작용, 엄격해진 학교규칙(S. M. Robinson, C. T. Braxdale, & S. E. Colson, 1985) 등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이에 따라 전환기에는 청소년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

하며(L. M. Fenzel, 2000), 이 시기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불안, 우울 등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적응 및 발달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F. Rice, N. Frederickson, & J. Seymour, 2011). 반면, 전환기의 바람직한 학교적응은 우울 등의 심리적인 문제 및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행동 등을 예방하여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발달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등의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에게 있어 전환기는 매우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전환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외국에 비해 국내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발달적, 환경적 변화라는 중요한 두 가지 전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환기 청소년 대상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중학교로의 전환에 따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적응의 어려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좀 더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적응과 우울의 유의한 관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들은 학교적응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부모는 한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아동기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동안에도 다양한 심리적·행동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D. K. Yang & Y. S. Lim, 1998) 청소년의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모지지는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관심, 인정, 도움 등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M. H. Han & A. J. Yoo, 1996),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며(Y.-M. Lee & H. Y. Min,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는 우울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Y.-H. Ha, 2004; K. J. Lee, 1997; J. Oak, Y.-H. Oh, & H.-O. Jung, 2001). 또한, 부모지지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와 관련되며(R. A. Bean, K. R. Bush, P. C. McKenry, & S. M. Wilson, 2003; D. S. DeGarmo & C. R. Martinez, 2006),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과 긍정적 관계가 있는(J. E. Choi & Y. J. Shin, 2003; J.-Y. Lee & K.-A. Lee, 2004; A. J. Yoo, J.-S. Lee, & J.-H. Suh, 2004) 등 부모지지는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 Y. Jo & G.-Y.-R. Ahn, 2012; H. S. Kim, H. Kim, & S. Park, 2006; Y.-O. Nam & S.-J. Lee, 2008). 따라서 청소년기 학교적응의 어려움으로 우울이 증가되더라도 부모지지가 높을 경우에는 우울이 낮아질 수 있으며, 부모지지는 학교적응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모지지

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재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 우울의 보호요인 혹은 예측요인으로 지적되어온 부모감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모감독은 가정보다 학교나 학원 등 집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청소년기에 더욱 중요하며(J. J. Go, 2005; J. K. Park & H. S. Doh, 2001; Y.-J. Yun, M.-S. Lee, & C.-A. Jun, 2011), 적절한 부모의 감독은 학교적응에 따른 우울을 완화시켜 준다(J.-A. Choi, 2012; J. S. Lee, 2006). 또한, 부모감독은 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 문제행동에 대한 중요한 보호요인 혹은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적절한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시켜준다. 부모감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감독은 자녀의 우울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 Kerr & H. Stattin, 2000), 많은 연구들이 부모감독과 우울의 유의한 관계를 보고하였고(J. S. Lee, 2006; M. G. So, 2008), J.-A. Choi(2012)는 부모감독이 우울 예방 및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S. Hwang(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감독이 남, 여학생의 우울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으며, J. K. Park과 H. S. Doh(200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감독이 청소년의 우울 등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 W. Ahn과 J. Y. Lee(2009)도 부모감독이 우울 등의 문제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감독은 학교적응(S. Hwang, 2007), 학습수준(P. R. Amato & F. Fowler, 2002)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어머니의 감독은 자녀의 학업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E. G. Kim, 1995). J. S. Lee(2006)는 원만하지 못한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데 이때 부모가 적절한 감독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청소년의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부모감독이 우울에 미치는 독립효과를 각각 규명한 반면, 부모감독이 학교적응과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재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부모감독의 중재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친구지지 또한 청소년의 심각한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가족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많아지는 시기로서, 또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며 서로의 유사한 경험들을 나누는 친구들로부터 많

은 영향을 받는다(J. E. Shin, 1998). 즉, 친구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지지원이며,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청소년들은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가장 많이 지각한다(A. Cho, 2005; Y.-S. Wang, 2000). 이러한 친구지지는 우울과 강한 부적 상관을 가지며(I. Choi, 2012), 낮은 수준의 지지는 높은 수준의 우울과 관련이 있다(J. A. Chambers, K. G. Power, N. Loucks, & V. Swanson, 2000). 또래와 원활하지 못하고 또래로부터 고립 및 배타 등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한 청소년은 적응과 우울 등의 심리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일부 연구들은 친구지지가 부모지지보다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D. J. Laible, G. Carlo, & M. Raffaelli, 2000). 또한, 친구지지는 청소년의 학교적응 어려움과 관련이 있는데, 학교적응이 낮은 청소년은 친구의 지지 수준이 낮았으며,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은 친구의 지지 수준이 높았다(Y.-J. Yim, 2001). 또래와의 긴밀한 관계형성은 학업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며(R. Crosnoe, S. Cavanagh, & G. H. Elder Jr, 2003), 친구지지는 또래와의 관계 및 학교규칙 준수와 긍정적 관계가 있다(K. J. Lee, 1997). 따라서 청소년기 학교적응의 어려움으로 우울이 증가되더라도 친구지지가 높을 경우에는 우울이 낮아질 수 있으며, 친구지지는 학교적응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친구지지는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재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는 청소년의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학교적응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교적응과 우울의 관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중재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부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거나, 청소년의 학교적응,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독립효과를 각각 규명해온 반면,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의 중재효과가 어떠한지 함께 규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학교적응과 우울의 관계에 대해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의 중재효과가 어떠한지 규명해보려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우울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특히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우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따른 우울을 중재해주는 부모와 친구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가정과 학교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

Figure 1. Research Model

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전환기 학교적응으로 인해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을 중재할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는데 필요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연구모형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연구문제 1>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교 3곳을 선정하고 중학교 1학년 5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한 13-14세의 청소년이다(S.-Y. Aum, 2011)에 근거하여, 본 연구대상자를 중학교 1학년으로 제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261명(47.5%), 여학생 289명(52.5%)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는 남학교 150명(27.3%), 여학교 183명(33.3%), 남녀공학 217명(39.5%)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우울

전환기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K. J. Oh, Y. A. Kim, E. H. Ha, H. Lee, and K.-E. Hong(2010)

의 자기보고식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YSR) 중 ‘즐거는 것이 매우 적다’ 등의 우울척도 총 2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점 Likert식 척도로 0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로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2) 학교적응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Y. H. Yoo(1994)의 학교적응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선생님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등의 교사관계 8문항, ‘나는 학교에서 학급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등의 또래관계 8문항, ‘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등의 학교수업 8문항, ‘나는 교실에서 조용히 생활한다’ 등의 학교규칙 8문항으로,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의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비조사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이 중간 점수인 3점에 표기하는 양상을 보였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사용하였다. 8개 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교사 관계 .74, 또래관계 .76, 학교수업 .70, 학교규칙 .67로 나타났으며, 학교적응 전체의 Cronbach’s α 는 .83으로 나타났다.

3) 부모지지

전환기 청소년의 부모지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P. W. Nolten(1994)이 제작한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학생사회지지 척도)를 J. Kim(1998)이 번역한 사회지도 척도 중 부모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등의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래의 척도는 6점 Likert식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4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4) 부모감독

전환기 청소년의 부모감독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H. Stattin과 M. Kerr(2000)가 개발한 Parental Monitoring Scale(부모감독 척도)를 J. K. Park(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자유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등의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식 척도이다. 1개 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감독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5) 친구지지

전환기 청소년의 친구지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P. W. Nolten(1994)이 제작한 Student Social Support Scale(학생사회지지 척도)를 J. Kim(1998)이 번역한 사회지지 척도 중 친구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의 친한 친구(들)는 나의 기분을 이해해준다' 등의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래의 척도는 6점 Likert식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4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할 질문지 내용의 적절성과 소요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구의 문항별 이해도를 파악하였으며,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본조사는 2012년 11월 넷째 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소재 중학교 3곳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질문지를 배부·회수하였다. 총 600부를 배부한 결과 571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응답이 부실한 21부를 제외하고 총 55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각 측정도구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측정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측정변수들 간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후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변수의 일반적 경향

측정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전체 평균은 2.80($SD = .32$)으로 척도의 점수범위(1-4점)를 고려할 때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각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척도의 점수범위(1-4점)를 고려할 때 교사관계($M = 2.65, SD = .48$), 또래관계($M = 3.06, SD = .45$), 학교수업($M = 2.69, SD = .45$), 학교규칙($M = 2.79, SD = .42$) 모두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환기 청소년의 우울 평균은 .43($SD = .38$)이었으며, 척도의 점수범위(0-2점)를 고려할 때 중간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중재변수의 경우,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의 각 평균은 3.02($SD = .59$), 2.85($SD = .58$), 3.12($SD = .51$)로 척도의 점수범위(1-4점)를 고려할 때 모두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 정도에 대해 임상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YSR]의 문제행동척도(K. J. Oh et al., 2010) 중 우울척도(불안/우울, 위축/우울)의 임상/준임상 기준점인 T점수에 따라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전체 청소년의 불안/우울, 위축/우울의 임상비율은 각각 4.5%, 4.7%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는 불안/우울 3.4%, 위축/우울 5.0%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불안/우울, 위축/우울의 임상비율은 각각 5.5%, 4.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준임상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의 불안/우울, 위축/우울은 각각 5.1%, 8.5%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불안/우울 8.4%, 위축/우울 9.2%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불안/우울, 위축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ment Table Variables

(N=550)

Measurement variables		M	SD	Score ranges of scales
School Adjustment	Teacher relationship	2.65	.48	1 - 4
	Peer relationship	3.06	.45	1 - 4
	School class	2.69	.45	1 - 4
	School rules	2.79	.42	1 - 4
	Total	2.80	.32	1 - 4
Parental Support		3.02	.59	1 - 4
Parental Monitoring		2.85	.58	1 - 4
Peer Support		3.12	.51	1 - 4
Depression		.43	.38	0 - 2

Table 2. The Frequency and Percent of Depression

(N=550)

Measurement variables		Normal/Subclinical/Clinical	Frequency(n)	Percent(%)
Anxiety/depression	Male	Normal($T < 65$)	230	88.1
		Subclinical($65 \leq T < 70$)	22	8.4
		Clinical($T \geq 70$)	9	3.4
	Female	Normal($T < 65$)	267	92.4
		Subclinical($65 \leq T < 70$)	6	2.1
		Clinical($T \geq 70$)	16	5.5
	Total	Normal($T < 65$)	497	90.4
		Subclinical($65 \leq T < 70$)	28	5.1
		Clinical($T \geq 70$)	25	4.5
Depression	Male	Normal($T < 65$)	224	85.8
		Subclinical($65 \leq T < 70$)	24	9.2
		Clinical($T \geq 70$)	13	5
	Female	Normal($T < 65$)	253	87.5
		Subclinical($65 \leq T < 70$)	23	8
		Clinical($T \geq 70$)	13	4.5
	Total	Normal($T < 65$)	477	86.7
		Subclinical($65 \leq T < 70$)	47	8.5
		Clinical($T \geq 70$)	26	4.7

/우울의 임상비율은 각각 2.1%, 8.0%로 나타났다. [YSR] 척도의 임상/준임상에 대한 해석은 확실히 표준점수 이상이면 해당 증후군과 관계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또래집단에 비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들 중에서 임상 범위에 있는 5%내외의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에 비해 우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Table 3. Regression Coefficients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on Depression

(N=550)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B	β	R ²	F
Teacher Relationship	-.08	-.10*	.01	5.89*
Peer Relationship	-.36	-.44***	.19	128.17***
School Class	-.29	-.35***	.12	75.02***
School Rule	-.02	-.03	.00	.39
School Adjustment	-.41	-.34***	.11	68.70***

* $p < .05$, *** $p < .001$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부록 참조), 단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전체($\beta = -.34$, $p < .001$)는 우울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의 설명력을 보였다($F = 68.70$, $p < .001$). 학교적응의 각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교사관계($\beta = -.10$, $p < .05$)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그 설명력은 1%로 낮게 나타났다($F = 5.89$, $p < .05$). 또래관계($\beta = -.44$, $p < .001$)는 우울을 19% 설명하였으며($F = 128.17$, $p < .001$), 학교수업($\beta = -.35$, $p < .001$)은 우울을 12% 설명하였다($F = 75.02$, $p < .001$). 반면, 학교규칙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의 중재효과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지지, 부모감독, 그리고 친구지지의 중재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수와 중재변수의 곱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항 때문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센터링 하였다. 각 독립변인의 원래값에서 평균을 빼서 편차 값을 구한 뒤(K. B. Park, 2003), 각 편차 값을 곱하여 상호작용항 변수를 만들었다. 공차한계값은 .74에서 .98 사이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VIF값은 1.02에서 1.35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잔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본 결과, 1.79에서 1.85 사이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 값은 기준값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은 값이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H.-I. Hwang, Y. S. Song, H. J. Choi, & W.-K. Son, 2008) 본 연구의 회귀분석이 적합

함을 알 수 있다.

1) 부모지지의 중재효과

먼저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지지의 중재효과가 어떠한지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학교적응과 부모지지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에서는 두 변수 모두 우울에 대해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의 설명력을 보였다($F = 41.28$, $p < .001$). 2단계에서는 학교적응과 부모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1%포인트의 추가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총 14%의 설명력을 보였다($F = 30.16$, $p < .001$). 이는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지지의 중재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재효과의 경향성을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Figure 2>와 같다. 부모지지가 낮을 때보다 높을 경우,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보다 낮은 청소년의 우울이 더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학교적응의 4개 하위영역별로 부모지지의 중재효과를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교사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지지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교사관계와 부모지지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에서는 부모지지만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3%의 설명력을 보였다. 2단계에서는 교사관계와 부모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으나 부모지지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생략). 다음으로 또래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지지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단계에서는 또래관계와 부모지지 모두 우울에 대해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의 설명력을 보였다($F = 72.69$, $p < .001$). 2단계에서는 또래관계와 부모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1%포인트의 추가설명력이 유의하게

Table 4.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of School Adjustment and Parental Support on Depression
(N=550)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Step 1		Step 2	
		B	β	B	β
School Adjustment(A)		-.33	-.27***	-.32	-.26***
Parental Support(B)		-.10	-.16***	-.09	-.14**
A×B				.16	.11**
R^2		.13		.14	
ΔR^2				.01	
F		41.28***		30.16***	

** $p < .01$, *** $p < .001$

Figure 2. Interaction Effect of School Adjustment and Parental Support on Depression

Table 5.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of Peer Relationship and Parental Support on Depression
(N=550)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Step 1		Step 2	
		B	β	B	β
Peer Relationship(A)		-.33	-.39***	-.32	-.38***
Parental Support(B)		-.10	-.15***	-.09	-.15***
A×B				.10	.09*
R^2		.21		.22	
ΔR^2				.01	
F		72.69***		50.84***	

* $p < .05$, *** $p < .001$

Figure 3. Interaction Effect of Peer Relationship and Parental Support on Depression

증가하여 총 22%의 설명력을 보였다($F = 50.84$, $p < .001$). 이는 또래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지지의 중재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재효과의 경향성을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Figure 3>과 같다. 부모지지가 낮을 때보다 높을 경우, 또래관계 적응이 높은 청소년보다 낮은 청소년의 우울이 더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수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지지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1단계에서는 학교수업과 부모지지 모두 우울에 대해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의 설명력을 보였다($F =$

46.16, $p < .001$). 2단계에서는 학교수업과 부모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1%포인트의 추가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총 15%의 설명력을 보였다($F = 32.35$, $p < .001$). 이는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수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지지의 중재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의 경향성을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Figure 4>와 같다. 부모지지가 낮을 때보다 높을 경우, 학교수업 적응이 높은 청소년보다 낮은 청소년의 우울이 더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규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Table 6.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of School Class and Parental Support on Depression (N=550)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Step 1		Step 2	
		B	β	B	β
School Class(A)		-.24	-.29***	-.23	-.28***
Parental Support(B)		-.11	-.17***	-.10	-.16***
A×B				.09	.08*
R^2		.14		.15	
ΔR^2				.01	
F		46.16***		32.35***	

* $p < .05$, *** $p < .001$

Figure 4. Interaction Effect of School Class and Parental Support on Depression

Table 7.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of School Adjustment and Parental Monitoring on Depression (N=550)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Step 1		Step 2	
		B	β	B	β
School Adjustment(A)		-.36	-.30***	-.38	-.31***
Parental Monitoring(B)		-.06	-.09	-.05	-.08
A×B				.14	.10*
R^2		.12		.13	
ΔR^2				.01	
F		36.44***		25.74***	

* $p < .05$, *** $p < .001$

Figure 5. Interaction Effect of School Adjustment and Parental Monitoring on Depression

않았으나(<Table 3> 참조), 부모지지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규칙과 부모지지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에서는 부모지지만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3%의 설명력을 보였다. 2단계에서 학교규칙과 부모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결과 부모지지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생략).

2) 부모감독의 중재효과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가 어떠한지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학교적응과 부모감독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에서는 학교적응만 우울에 대해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의 설명력을 보였다($F = 36.44$, $p < .001$). 2단계에서는 학교적응과 부모감독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1%포인트의 추가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총 13%의 설명력을 보였다($F = 25.74$, $p < .001$). 이는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의 경향성을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Figure 5>와 같다. 부모감독이 낮을 때보다 높을 경우, 학교적응이

Table 8.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of School Adjustment and Peer Support on Depression (N=550)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Step 1		Step 2	
		B	β	B	β
School Adjustment(A)		-.29	-.24***	-.30	-.24***
Peer Support(B)		-.16	-.21***	-.14	-.19***
A×B				.16	.09*
R^2		.146		.153	
ΔR^2				.007	
F		46.88***		32.98***	

* $p < .05$, *** $p < .001$

Figure 6. Interaction Effect of School Adjustment and Peer Support on Depression

Table 9.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of School Class and Peer Support on Depression (N=550)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Step 1		Step 2	
		B	β	B	β
School Class(A)		-.23	-.27***	-.23	-.28***
Peer Support(B)		-.17	-.23***	-.16	-.22***
A×B				.14	.10*
R^2		.17		.18	
ΔR^2				.01	
F		55.60***		39.65***	

* $p < .05$, *** $p < .001$

Figure 7. Interaction Effect of School Class and Peer Support on Depression

높은 청소년보다 낮은 청소년의 우울이 더 많이 감소되었으며, 반면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은 오히려 우울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학교적응의 4개 하위영역별로 부모감독의 중재효과를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교사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감독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관계와 부모감독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에서는 부모감독만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의 설명력을 보였다. 2단계에서는 교사관계와 부모감독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으나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다음으로 또래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감독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는 또래관계와 부모감독 모두 우울에 대해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의 설명력을 보였다. 2단계에서 또래관계와 부모감독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으나 부모감독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교수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감독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는 학교수업과 부모감독 모두 우울에 대해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의 설명력을 보였다. 2단계에서

학교수업과 부모감독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으나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교규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Table 3 참조), 부모감독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규칙과 부모감독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에서는 부모감독만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의 설명력을 보였다. 2단계에서는 학교규칙과 부모감독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으나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생략).

3) 친구지지의 중재효과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친구지지의 중재효과가 어떠한지 살펴보면 <Table 8>과 같다. 학교적응과 친구지지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에서는 두 변수 모두 우울에 대해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6%의 설명력을 보였다($F = 46.88$, $p < .001$). 2단계에서는 학교적응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0.7%포인트의 추가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총 15.3%의 설명력을 보였다($F = 32.98$, $p < .001$). 이는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친구지지의 중재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와 경향성을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Figure 6>과 같다. 친구지지가 낮을 때보다 높을 경우,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보다 낮은 청소년의 우울이 더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학교적응의 4개 하위영역별로 친구지지의 중재효과를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교사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구지지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관계와 친구지지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에서는 친구지지만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의 설명력을 보였다. 2단계에서는 교사관계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으나 친구지지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생략). 다음으로 또래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구지지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는 또래관계만 우울에 대해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의 설명력을 보였다. 2단계에서 또래관계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으나 친구지지의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생략). 다음으로 학교수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구지지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1단계에서 학교수업과 친구지지는 모두 우울에 대해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의 설명

력을 보였다($F = 55.60$, $p < .001$). 2단계에서 학교수업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1%포인트의 추가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총 18%의 설명력을 보였다($F = 39.65$, $p < .001$). 이는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수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친구지지의 중재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와 경향성을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Figure 7>과 같다. 친구지지가 낮을 때보다 높을 경우, 학교수업 적응이 높은 청소년보다 낮은 청소년의 우울이 더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규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Table 3 참조), 친구지지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는 친구지지만 우울에 대해 독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의 설명력을 보였다. 2단계에서 학교규칙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으나 친구지지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생략).

IV. 논 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우울, 그리고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학교적응,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는 평균적으로 모두 척도의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우울은 평균적으로 척도의 중간수준 이하로 낮게 나타나 대체로 양호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우울수준을 [YSR]의 문제행동척도(K. J. Oh et al., 2010)에 근거하여 분류했을 때, 본 연구대상자 중 임상 범위의 청소년은 불안/우울 4.5%, 위축/우울 4.7%로 나타났다. 이는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 우울증 유병률을 5% 내외로 보고한 선행연구들(E. J. Costello, A. Erkanli, A. Angold, 2006; A. C. Petersen et al., 1993)과 유사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YSR 척도는 청소년의 우울 범위를 잘 보여주는 타당한 도구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대략 5%의 청소년들이 임상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임상 수준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불안/우울 비율이 약간 더 높고, 위축/우울은 약간 더 낮는데 평균적으로는 여학생의 우울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병률이 높다는 선행연구들(S.-J. Cho et al, 2001; M.

S. Kim, 2008; R. E. Robert & Y. W. Chen, 1995)을 고려할 때, 전환기 청소년의 우울증 유병률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계속 규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임상 수준과 준임상 수준의 우울을 합쳤을 때 그 비율이 10% 내외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30.5%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제 8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의 결과(MEST, MW, & CDC, 2012)와는 차이가 있다. 측정도구, 연구대상, 자료 수집방법 등의 차이에서 일부 기인한 결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 추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교적응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학교적응을 잘할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J.-M. Lee, 2007; W. K. Park, J. K. Kim, S. W. Ahn, & H. J. Kang, 2006; S.-S. So, M. Song, & C.-S. Kim, 2010)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본 연구결과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우울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적응의 4개 하위영역별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또래관계, 학교수업, 교사관계는 우울에 대해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학교규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는 선행연구들(S. R. Kim, 2001; E.-H. Lee & S.-O. Jeong, 2006)에서도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학교에서 또래관계 적응은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킴으로써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학교수업 또한 J. Yoo(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본 연구결과 입시 위주 교육이 강화되는 전환기 청소년의 특성상 학교수업에의 적응은 청소년의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관계는 청소년의 우울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앞서 또래관계 및 학교수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게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달리 교사의 절대적인 영향이 감소하며 교사 대 학생의 높은 비율, 교사의 과다한 행정 잔무 등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인하여 교사가 개별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A. J. Yoo, E. Han, & N. Choi, 2002)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관계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은 미치지 그 크기는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교규칙은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칙준수만 우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Y. S. Cho와 K. N. Lee(201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인데, 본 연구에서 측정된 학교규칙 내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청소년이 힘

들어하거나 불만이 많은 학교규칙에는 복장, 두발 확인 등이 있다(S. N. Cho, D.-W. Lee, & S.-W. Park, 2002; S.-H. Yoo, 2007)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규칙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봄으로써 학교규칙과 우울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지지의 중재효과를 알아본 결과, 중재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가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는,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보다 낮은 청소년의 우울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 부모지지는 청소년의 우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Y.-H. Ha, 2004; D. K. Yang & Y. S. Lim, 1998),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긍정적 관계가 있다(S. Y. Jo & G.-Y.-R. Ahn, 2012; Y.-O. Nam & S.-J. Lee, 2008)는 선행연구에 기초해볼 때, 본 연구결과 부모지지는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교적응의 4개 하위영역 중에서는 또래관계와 학교수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지지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가 높을 경우, 또래관계와 학교수업 적응이 높은 청소년보다 낮은 청소년의 우울을 더 많이 감소시켜준다. 학교에서 또래관계 적응의 어려움으로 우울이 증가되더라도 부모지지는 자녀의 우울을 낮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우울과 부적 관계를 보이며(I. Choi, 2012), 학업이나 학업성취도와 긍정적 관계가 있다(K.-H. Kim & K.-H. Lee, 1997)는 선행연구에 기초해볼 때, 부모지지는 학교수업 적응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학교수업에의 적응이 어려워 우울이 증가되더라도 부모지지의 중재역할에 의해 자녀의 우울이 감소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감독의 중재효과를 알아본 결과, 중재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감독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는,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보다 낮은 청소년의 우울이 더 많이 감소한 반면, 학교적응이 낮은 청소년보다 높은 청소년의 우울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 부모감독은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J.-A. Choi, 2012; M. Kerr & H. Stattin, 2000), 부모감독은 성적, 대학입시 등의 스트레스와 우울 등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중재적 역할을 한다(H. W. Ahn & J. Y. Lee, 2009)는 선행연구에 기초해볼 때, 부모감독은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학교적응의 어려움으로

우울이 증가되더라도 부모감독이 높으면 청소년의 우울은 감소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감독이 높으면 오히려 청소년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한다. 이는 이들 청소년이 부모감독을 자녀에 대한 보호보다는 감시나 통제의 의미로 지각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향후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감독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친구지지의 중재효과를 알아본 결과, 중재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가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는,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보다 낮은 청소년의 우울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 친구지지는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낮춰주며(I.-S. Kim & K.-N. Lee, 2004),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J.-E. Goo, 2000),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청소년은 친구지지의 수준이 낮다(Y.-J. Yim, 2001)는 선행연구에 기초해볼 때, 본 연구결과 친구지지는 학교적응과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우울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적응이 힘들어서 우울이 증가하더라도 친구지지가 높다면 우울은 감소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적응의 4개 하위영역과 우울의 관계에 대해 친구지지의 중재효과를 살펴본 결과, 학교수업과 우울의 관계에 대해서만 중재효과가 나타났다. 친구지지가 높을 경우, 학교수업 적응이 높은 청소년보다 낮은 청소년의 우울을 더 많이 낮춰준다.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이며(I. Choi, 2012), 학업이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K.-H. Kim & K.-H. Lee, 1997)는 선행연구에 기초해볼 때, 본 연구결과 친구로부터 학업적인 문제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많이 받음으로써 학교수업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시위주 교육이 강화되는 전환기 청소년의 특성상 학교수업에의 적응은 청소년의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앞서 확인하였는데, 이때 친구지지가 중재역할을 해준다는 점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낮을수록 우울이 증가한다. 둘째, 학교적응과 우울의 관계에 대해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의 중재효과가 작용함으로써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지지는 특히 또래관계와 학교수업 적응이 낮은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켜준다. 부모감독은 학교적응이 낮은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켜주는 반면,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의 우울은 증가시킨다. 그리고 친구지지는 특히 학교수업 적응이 낮은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켜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기초하여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시기의 제한점이다. 지금까지 국내 전환기 청소년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후기부터 중학교 1학년 후기 사이에 이루어졌으며(S.-Y. Aum, 2011; S.-H. Heo & M.-S. Lee, 2012; S.-H. Yoo, 2007), 본 연구의 조사 시기는 중학교 1학년 후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후기부터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중학교 진학에 따른 전환기의 학교적응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인지, 개인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인지 등 시기별로 학교적응 어려움과 우울을 비교한 것이 아니므로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따른 우울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범위의 전환기 연구가 이루어진 국외연구들(H. Chung, M. Elias, & K. Schneider, 1998; J. V. Hamm, T. W. Farmer, K. Dadisman, M. Gravelle, & A. R. Murray, 2011; K. C. Pears, H. K. Kim, & L. D. Leve, 2012)을 참고하여, 체계적 연구설계를 통해 동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환기동안 각 시기별로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종단 비교해봄으로써 전환기 청소년의 우울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학교 2학년생과 3학년생 등 비교집단이 없는 본 연구결과에 대해 전환기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별 비교연구를 통하여 전환기의 특성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였다. 우울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므로, 추후연구에서는 학교적응 이외에 전환기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도로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의 중재효과에 초점을 두었으나, 교사 등 의미 있는 타자들로부터 제공받는 다양한 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적응과 우울의 관계를 중재할 여러 중재변인들을 파악하여 함께 규명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의 중재효과를 밝힘으로써, 전환기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지도방안 마련에 필요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특히, 학교적응의 하위영역들과 우울의 관계에 대해 중재효과를 밝힘으로써,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적응의 하위영역들을 중심으로 부모지지와 부모감독 그리고 친구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략 5%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임상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전환기 청소년 대상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의 필요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구사회에서는 일찍부터 청소년 전환기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전환기에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S.-H. Yoo, 2007).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교사, 청소년 모두 전환기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기 청소년 대상의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환기 특별프로그램은 중학교진학 전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학교 진학 전 학교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중학교 1학년 말에도 학교적응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진학 후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환기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친구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한 후속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hn, H. W., & Lee, J. Y. (2009).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al monitor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tress and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1), 77-88.
- Amato, P. R., & Fowler, F. (2002). Parenting practices, child adjustment, and family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3), 703-716.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Aum, S.-Y. (2011). *Perception of school environment and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ts during middle school transi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Bacchini, D., Miranda, M. C., & Affuso, G. (2011).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nd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on antisocial behavior and anxiety/depres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2), 269-292.
- Bean, R. A., Bush, K. R., McKenry, P. C., & Wilson, S. M. (2003). The impact of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of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5), 523-541.
- Chambers, J. A., Power, K. G., Loucks, N., & Swanson, V. (2000). The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and its association with peer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a group of incarcerated young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4(3), 350-368.
- Cho, A. (2005).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3(3), 137-155.
- Cho, S. N., Lee, D.-W., & Park, S.-W. (2002). *Subculture and identity in adolescence: focusing on peer group, family, and school*. Seoul: Jipmoondang.
- Cho, S.-J., Jeon, H.-J., Kim, M.-J., Kim, J.-K., Kim, S.-U., Lyoo, I.-K., & Cho, M.-J. (2001).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the adolescents in an urban area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0(4), 627-639.
- Cho, Y. S., & Lee, K. N. (2010). Effects of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maladjustment on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8), 27-37.
- Choi, H.-S., & Lee, H.-R. (2003). The effect of peer group counseling on the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of school-maladjusted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2), 201-216.
- Choi, I. (2012).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on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according to sex: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 135-160.
- Choi, J. E., & Shin, Y. J. (2003). A study on adolescents' level of school adjustment by their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 and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2), 199-210.

- Choi, J.-A. (2012).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al knowledge and adolescent disclosure on depress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20(1), 57-83.
- Choi, K.-R. (2010). The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academic performance and peer factor on adolescents'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6), 95-111.
- Chung, H., Elias, M., & Schneider, K. (1998). Patterns of individual adjustment changes during middle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6(1), 83-101.
- Chung, O. B. (2008). *Adolescent development*. Seoul: Hakjisa.
- Costello, E. J., Erkanli, A., & Angold, A. (2006). Is there an epidemic of child or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12), 1263-1271.
- Crosnoe, R., Cavanagh, S., & Elder Jr, G. H. (2003). Adolescent friendships as academic resources: The intersection of friendship, race, and school disadvantage. *Sociological Perspectives*, 46(3), 331-352.
- DeGarmo, D. S., & Martinez, C. R. (2006). A culturally informed model of academic well being for Latino youth: the importance of discriminatory experiences and social support. *Family relations*, 55(3), 267-278.
- Dumas, J. E., & Nilsen, W. J. (2010). *Abnorm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Lim, Y. S., Kim, H., Seol, I. J., Cho, A., & Han, S.-C.). Seoul: Sigm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 Eoh, Y. (2005). *The effects of the vulnerable family on the depression and behavioral problems of adolescents :the protective effect of social supports and personal featur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Fenzel, L. M. (2000). Prospective study of changes in global self-worth and strain during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1), 93-116.
- Go, J. J. (2005). Effect of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s' self-control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2), 1-17.
- Goo, G.-M., & Chung, H.-H. (2012). Structural relations among adolescents' stress, automatic thought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a path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3), 1295-1314.
- Goo, J.-E. (2000).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resilience, positive emotion,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s' adjustment in family life ·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 Ha, Y.-H. (2004). Effect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42-52.
- Hamm, J. V., Farmer, T. W., Dadisman, K., Gravelle, M., & Murray, A. R. (2011). Teachers' attunement to students' peer group affiliations as a source of improved student experiences of the school social-affective context follow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267-277.
- Han, M. H., & Yoo, A. J. (1996).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7(1), 173-88.
- Han, S.-C. (2004). *Adolescent psychology*. Seoul: Kyoyookbook.
- Heo, S.-H., & Lee, M.-S. (2012). Perceptions of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on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Journal of Learning Strategy Arbitraion Studies*, 3(2), 39-77.
- Hwang, H.-I., Song, Y. S., Choi, H. J., & Son, W.-K. (2008). *SPSS data analysis in the study of infants and children*. Seoul: Changjisa.
- Hwang, S. (2007). *Parental attachment, parental monitoring, peer attachment, association with deviant peers, and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Jeon, J. (2005). *The effect of the extent of internet use and social supports for adolescent depression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Jo, S. Y., & Ahn, G.-Y.-R. (2012). Social support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broken-home.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4(1), 33-47.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
- Kim, E. G. (1995).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monitoring and children's school competence and conduct : in respect of perceptions of mother an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E. J., & Oh, K. J. (1992).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1), 117-128.
- Kim, H. S., Kim, H., & Park, S. (2006). The impa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maladjustment of adolescent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maltreated adolescents and non-maltreat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1, 207-232.
- Kim, H.-Y. (1999). *A study of the influences of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the early youth on their psychosocial maladapt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I.-S., & Lee, K.-N. (2004). Parent attachment, peer support and behavior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7(2), 97-113.
- Kim, J. (1998).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system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M.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related stress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erfectionism, self-esteem, and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2), 809-829.
- Kim, K.-H. (2004). Depression and suicide in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0, 55-68.
- Kim, K.-H., & Lee, K.-H. (1997). A study on social support and school-life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2), 145-165.
- Kim, M. S. (2008).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a city, and the effect of depression on the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9(2), 645-658.
- Kim, M. S. (2009). The study of the effect of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on the school adjustment of Korean adolesc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1(2), 53-67.
- Kim, S. R. (2001). *Impacts of school environments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45-59.
- Lee, E.-H., & Jeong, S.-O. (2006). Ego identity as a mediator between parenting behaviors, peer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Studies on Korean Youth*, 17(2), 213-239.
- Lee, J. S.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family variables and depression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M. (2007). The influences of ego-identity and school adjustment on adolescents'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8(4), 1593-1603.
- Lee, J.-Y. & Lee, K.-A. (2004).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2), 261-276.
- Lee, K. J. (1997). *Stress, social support, and behavior problems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 Lee, K.-N. (2003). The effects of attachment and depression on the adolescent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2(1), 1-13.
- Lee, Y.-M., & Min, H. Y. (2004). The effects of parental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on the depression of school age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4), 1-10.
- Lewinsohn, P. M., Rohde, P., Seeley, J. R., & Baldwin, C. L. (2001). Gender differences in suicide attempt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0(4), 427-434.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MEST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 MW(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CDC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The 8th Adolescent Health Behaviors Online Survey.
- Millings, A., Buck, R., Montgomery, A., Spears, M., & Stallard, P. (2012). School connectedness,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dolescence*, 35(4), 1061-1067.
- Min, H.-Y.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ttachment and depression: the mediation effect of peer attachment in school ag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1(5), 915-927.
- Nam, Y.-O., & Lee, S.-J. (2008). A comparison of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between home-reared and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5(1), 1-18.
- Nolten, P. W.(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Oak, J., Oh, Y.-H., & Jung, H.-O. (2001). Adolescent attachment type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r-comparison among incarcerated delinquent group, risk group and normal group-.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2), 259-270.
- Oh, K. J., Kim, Y. A., Ha, E. H., Lee, H., & Hong, K.-E. (2010). Youth Self Report(YSR). Seoul: Huno.
- Park, J. K. (2001). *The relations of the maternal monitoring and information sources of parental knowledge to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J. K., & Doh, H. S. (2001). The effects of maternal monitoring and information sources of maternal knowledge o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12), 129-140.
- Park, K. B.(2003).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Seoul: Hakjisa.
- Park, W. K., Kim, J. K., Ahn, S. W., & Kang, H. J. (2006). Depression, anxiety, and school adaptability of secondary students with and without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2(3), 301-323.
- Pears, K. C., Kim, H. K., & Leve, L. D. (2012). Girls in foster care: Risk and promotive factors for school adjustment across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1), 234-243.
- Petersen, A. C., Compas, B. E., Brooks-Gunn, J., Stemmler, M., Ey, S., & Grant, K. E. (1993). Depression in adolescence. *American Psychologist*, 48(2), 155.
- Rice, F., Frederickson, N., & Seymour, J. (2011). Assessing pupil concerns about transition to secondary school.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244-263.
- Roberts, R. E., & Chen, Y. W. (1995).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exican-origin and Angl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1), 81-90.
- Robinson, S. M., Braxdale, C. T., & Colson, S. E. (1985). Preparing dysfunctional learners to enter junior high school: A transition curriculum.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18(4), 1-10.
- Shin, J. E. (1998).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of adolescent's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im, M.-Y., & Kim, K.-H. (2005).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s of Korean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 of sex and developmental period.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3), 313-325.
- So, M. G. (2008). *The study on parenting from the perspective of juvenile, their self esteem and mis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o, S.-S., Song, M., & Kim, C.-S. (2010).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on the depression of early adolesc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3), 1-23.
-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4), 1072-1085.
- Stice, E., Rohde, P., Gau, J., & Ochner, C. (2011). Relation of depression to perceived social support: results from a randomized adolescent depression prevention tria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9(5), 361-366.
- Wang, Y.-S.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olescents' belongingness and maladaptation*. Unpub-

- 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Gyeonggi-do, Korea.
- Yang, D. K., & Lim, Y. S. (1998).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er on the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ocial Issues*, 4(1), 55-74.
- Yim, Yu.-Jin.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chool-life adjustment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llabuk-do, Korea.
- Yoo, A. J., Han, E., & Choi, N. (2002). Institutionalized & home-reared adolescents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and agg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3), 67-82.
- Yoo, A. J., Lee, J.-S., & Suh, J.-H. (2004). Relation of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ing behavior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3), 161-180.
- Yoo, J. (2010). A study of psychological variables based on academic achievement levels -middle school students' case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8(2), 34-42.
- Yoo, S.-H. (2007). Student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of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0(1), 355-375.
- Yoo, Y. H. (1994). *The relationships among school adjustment, anxiety,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Yun, Y.-J., Lee, M.-S., & Jun, C.-A. (2011).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health, parental monitoring,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2), 1-14.

☐ 접수일 : 2014년 03월 14일

☐ 심사일 : 2014년 04월 08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3일

<Appendix>

Intercorrelations among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Parental Support, Parental Monitoring, Peer Support, and Depression (N=550)

	1	2	3	4	5	6	7	8	9
1. Teacher Relationship	1								
2. Peer Relationship	.24***	1							
3. School Class	.47***	.34***	1						
4. School Rule	.41***	.00	.30***	1					
5. School Adjustment	.78***	.58***	.77***	.61***	1				
6. Parental Support	.34***	.31***	.36***	.16***	.43***	1			
7. Parental Monitoring	.30***	.20***	.36***	.21***	.39***	.65***	1		
8. Peer Support	.27***	.60***	.32***	.06	.46***	.37***	.32***	1	
9. Depression	-.10*	-.44***	-.35***	-.03	-.34***	-.27***	-.20***	-.32***	1

* $p < .05$, *** $p < .001$